분당 을 손학규 VS 강재섭 격돌
강원지사 최문순 VS 엄기영 대결

여야 대진표 확정… 재보선 판세 '박빙'
분당, 박계동 무소속 출마 여부 변수

손학규 후보

강재섭 후보

최문순 후보

엄기영 후보

4·27 재보선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간 '빅매치'가 성사된데 이어 강원지사 보궐선거도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 간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당장 여야의 내부 권력 구도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적인 정국 흐름을 가늠할 전망이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분당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물론, 강원지사 보궐선거,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의 전반적인 판세가 치열한 경합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한나라당 정희수 사무 부총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실시한 분당을 여론조사 경선 결과, 강 전 대표를 한나라당 출마 후보자로 추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분당을 유권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71.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정 부총장은 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분당을 공천 신청자 중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선에 불참함에 따라 그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강원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엄기영 전 MBC 사장을 확정했다.

엄 후보는 이날 열린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유휴투표로 환산해 합산한 결과 57.4%를 얻어 각각 33%와 9.6%에 그친 최흥집, 최동규 예비후보를 눌렀다.

이에 따라 강원지사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 등 'MBC 사장 출신'후보들의 양보할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경남 김해 을 보선은 지난 2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됐으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간 단일화 여부에 따라 조만간 여야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처럼 거물급 후보들이 속속 출마하면서 4·27 재보선의 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세는 안갯속이어서 여야 지도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분당을의 경우 강재섭-손학규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박스권 내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강원지사 및 경남 김해을도 선거 변수가 많아 시계 제로의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이날부터 당을 본격적인 재보선 체제로 전환하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배는 물론, 내년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재보선에서 패배한 당의 지도부는 교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당선무효 기준 완화 법 개정 반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일부 의원들이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효성 없는 법안,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와 선거를 바라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개정안 발의자에 포함된데 대해 "구체적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찰이 개혁에 대해 무한정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이 검찰다운지 봐야 한다"며 "BBK 에리카 김 (사건은) 슬쩍 넘겼다.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매년 자문료를 7억원씩 받아도 그냥 두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의 문제라면 잘라버리는 그러한 태도는 개혁 대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 최고위원은 김해을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 차원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과 관련, "이번 협상 난항과 결렬에서 보듯이 연대가 단일정당보다 결코 쉽지 않다"면서 야권 대통합 정당 건설을 위해 4·27 재보선 후 당론화 절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일 오후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에서 강창일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다. 독도특위는 이날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민주 순천 '무공천 방침'에 혼란 가중

당 공식 입장 표명 없어 예비후보들 진퇴양난

민주당이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 무공천 방침을 세웠으나 아직 당무위원회 의결이 없는 등 공식화하지 않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앙당이 후보 무공천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 표명이 없어 당 소속 6명의 예비후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선거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무공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 6명은 조바심 속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무공천 확정 여부에 따라 진퇴를 결정키로 하는 등 각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 중 허신행(68)·허상만(67) 전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상철(51) 경기대 교수도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구희승(48)변호사와 조순용(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무소속 출마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오는 8일과 9일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줄을 이으면서 해당행위 논란도 있지만,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나 전남도당 등은 무공천 방침 미확정을 이유로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순천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들이 대거 참석, 순천지역위 차원의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무공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당 소속 후보가 출마를 해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며 "유권자도, 예비후보도, 당직자도 모두가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안세찬(48) 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 특보는 '무공천' 확정 여부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6명 외에 예비후보로는 김선동(43) 민주노동당 순천 보선 후보, 김선일(47) 국민참여당 후보, 김경재(68) 전 민주당 의원 등 3명이 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화순 도의원 후보에 민주, 구복규씨 확정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27 화순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구복규(56) 전 화순 읍장을 확정했다.

화순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보궐선거는 홍이식 도의원이 화순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고자 도의원을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화순군수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벌여 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독도특위, '日교과서 검정 취소결의안' 채택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짓고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일본 정부 측에 촉구했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행위는 미래의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도특위는 이와 함께 조만간 독도를 방문, 특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독도 경비 및 관리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LH 전북 – 경남 분산배치' 당론

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 전북도의 요구를 수용해 경남도와의 분산배치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LH 공사는 기능적으로 분산배치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공사의 분산배치는 당연한다는 것을 당의 입장으로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공기업 지방이전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으로, LH공사 통합 및 이전도 이 취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중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항상 경제성을 앞세우면서 국민과의 약속도 파기해 국가가 국민 신뢰를 잃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경제성장은 국민생활과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성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북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LH 분산배치가 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하고 정부와 이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 및 면담을 요구키로 했다.

전북도와 민주당은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권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경남에 보상용으로 LH 일괄이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 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다산공인중개사

물류창고 부지구함 매매·임대

광주권
전남일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8M이상 도로 확보
4500㎡ 이상
(1300평 이상)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광산동 농장.양어장(용)매매
▶면적 : 4,000평 , 철도및유지(그린밸트) 관리사 15평(가든가능) 8미터 도로접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하남공단내 공장매매
▶대 지 : 700평
▶건 물 : 415평 (공장.사무실.기숙사)
▶전 기 : 400㎾
9번 도로접
▶매매가격 : 13억

화순 남면 매리 잡종지매매
▶면 적 : 1,800평(보전관리)
▶건 물 : 건물 32평
▶매매가격 : 2억원

문의 : ☎ 016-644-4265, FAX.523-8558

암 유전자검사 전문기업 — Gene Makeover genestory 아름다운 유전자 이야기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로 암 공포에서 해방되세요!

얼마 전 우리나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암의 사망 원인의 1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한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 각종 발암물질로 뒤 덮혀 있으며 학계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매스컴에서 암은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것과 후천적으로 오래된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나 각종환경에 기인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암의 공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기에,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항상 내가 암은 아닌가 하고 염려한다. 하지만 암은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진전 되어 치료시기를 놓치어 얼마 안 가서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뒷 받침 될 경우엔 오랜 기간 방사선 항암치료 및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평생 온 가족이 같이 매달려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치료비 감당을 못하여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학계에 알려진 암의 발생과정은 살펴보면 암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 속 DNA가 손상을 입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것이 암의 시작이다.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늘어나면 종양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악성종양이 된다. 돌연변이가 된 세포가 증식하는 가운데서 종양이 생겨나게 되는데 돌연변이 세포가 암 덩어리가 되기까지 통상10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유전자변이 분석연구를 통해 선천적 후천적인 암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기법은 주로 대형 암 전문병원에서 고가인 300만~3000만 원으로 검사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겐 꿈도 꿔 볼 수 없는 검사였다.

하지만 진스토리에서는 벤처기업 다이오진이 개발특허 등록 된 첨단기법인 암유전자분석 (다이오진 CG CHeck: 혈장DNA 총량검사, 유전자 메틸화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및 추가 DNA 검사)을 간단한 채혈만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암유전자분석검사를 통해 암 유전자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CT나 MRI 등의 현 첨단기기 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현 기술로 1Cm의 암이 되어야 파악이 가능하여 일부 전이가 되어 진 상태에서 발견) 생성 초기의 암 발견으로 사전에 치유 가능케 하고 암 억제 유전자의 복구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섭생이나 운동 및 건강한 생활을 통해 몸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를 통해 건강하다고 자신 하던 분 들에게서도 선종성 용정, 미세암 또는 조기암이 발견, 제거하여 새롭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이 진스토리 암유전자 조기검사는 이미 암으로 형성 된 것을 발견하기 보다는 암으로 형성 되기 전의 상태를 파악 해 주어 암을 사전에 차단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암환자가 계시던 분, 암 치료 후 재발을 두려워하시는 분, 환경호르몬에 노출 되신 분,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 용정이나 선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꼭 받아 보아야 할 검사가 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건강 과 부모님께 건강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끌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인들의 종합검진과 아울러 필수적인 암 유전자 검사로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스토리에서는 이 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컨설팅 할 GSC(진스토리 컨설턴트)도 모집한다.

(주)진스토리 | 문의전화 : 062-385-2212~3 www.genestory.kr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72-1 3층